

Ayo Adewuya 박사 , 고린도후서, 1차 세션, 서론

© 2024 Ayo Adewuya 및 Ted Hildebrandt

이것은 고린도후서에 대한 그의 가르침에서 아요 아데 우야 박사 입니다 .
이것은 세션 번호 1, 서론입니다.

저는 Ayo Adewuya 이고, 테네시주 클리블랜드에 있는 Pentecostal Theological Seminary에서 그리스어와 신약 성경을 가르치는 교수입니다. 저는 그곳에서 수년간 가르쳤습니다. 저는 원래 나이지리아 출신이고 선교사로 필리핀으로 이주하기 전까지 상당한 시간을 그곳에서 보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이곳으로 인도하셨기 때문에, 저는 이곳에서 수년간 가르쳤습니다. 이 강의 시리즈에서 우리는 고린도인들에게 보낸 바울의 두 번째 편지인 고린도인들에게 보낸 바울의 두 번째 편지를 살펴볼 것입니다 .

책을 볼 때, 항상 서론부터 시작하고, 몇 가지 배경 세부 사항을 알아보고 , 서신을 낳은 원인을 알고, 저자와 독자 모두에게 책에서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아는 것이 좋습니다. 고린도후서를 볼 때, 가장 먼저 고려하고 싶은 것 중 하나는 바울과 고린도인과의 전반적인 관계, 특히 서신을 쓰게 된 사건입니다. 그 측면에서, 바울과 고린도인의 관계는 매우 복잡했으며, 그가 쓴 서신의 수를 통해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두 개 이상의 서신을 썼다는 데는 항상 만장일치로 동의합니다. 그는 아마도 네 개나 다섯 개 정도 썼을 것이고, 정경에 하나나 두 개 이상이 없기 때문에 제가 명확히 해야 합니다. 하지만 고린도전서 5장 9절을 보면 바울은 고린도인들에게 이전에 서신을 썼다고 말했고, 그 이전 서신에서 형제나 자매라고 부르는 사람들과 어울리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부름을 저버리는 방식으로 행합니다. 그리고 물론 고린도후서 2장 3-4절과 7장 8-12절을 보면 바울은 심각한 서신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고린도후서 1-9장이 10-13장과 별개의 서신일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우리는 정경에 서신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문제는 계속 다루겠습니다. 고린도인들 쪽에서는 바울과 고린도인들 사이에 분명히 어떤 의사소통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바울에게 편지를 썼고,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 걱정되는 특정 질문에 대한 답을 원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헛된 우상과 결혼에 대해 어떻게 해야 할지 알고 싶어했습니다.

부활에 대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부활이 사라졌는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한 문제였기 때문에 그들은 썼습니다. 하지만 그 외에도 그들은 두 명의 사절을 보냈습니다. 그들은 고린도에서 바울에게 사절을 보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1-12절에서 볼 수 있고, 물론 스테파노와 그의 동료들도 바울에게 돌아왔습니다. 고린도전서 16-18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훌륭한 관계를 맺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에서 고린도인들에게, 고린도인에서 바울에게로 서로 소통이 이루어졌다는 의미에서 훌륭했습니다. 바울 자신도 고린도에 두 명의 사절을 보냈고, 디모데가 한 명을 이끌었고, 고린도전서 4-17장과 16장 10-11절에서 볼 수 있고, 물론 그는 디도가 이끄는 또 다른 사절을 보냈고, 고린도후서 7장 14-16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고린도인 사이에는 광범위한 소통이 있었습니다. 이제 고린도전서가 쓰여지게 된 사건은 우리가 방금 설명한 것과 같습니다. 이전 편지, 사절단, 결혼에 대한 설명을 구하는 고린도의 편지, 그리고 그 모든 것,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를 썼고, 그런 다음 물론 그는 그들을 방문했고, 그가 그들을 방문했을 때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는 다시 가고 싶지 않다고 말했고, 그래서 그는 그들에게 슬픈 편지를 썼고, 물론 그것은 고린도인들을 괴롭혔고, 그 시점에서 바울과 고린도인 사이에는 뼈격거리는 관계가 있었고, 바울은 그것을 바로잡을 방법을 찾아야 했고, 그들에게 디도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반적인 관계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고린도후서에 대해 이야기할 때, 고린도전서와 고린도후서 사이의 시간이 길다는 주장이 항상 있었습니다. 아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전서에서 일어난 사건들, 고린도전서에서 우리가 겪는 문제들 중 일부는 바울이 고린도후서를 쓸 당시에도 여전히 존재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클레멘트의 서신을 읽어보면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언급한 내용 중 일부가 여전히 존재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에 대해 더 이야기해 봅시다. 그러니까, 긴 시간 간격이 없습니다. 서로 매우 가까웠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편지를 썼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다룰 때, 바울이 다루는 문제와 그가 살펴보고 있던 것에 대한 전반적인 관점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보통 바울이 살펴보는 주제를 살펴보고 싶어합니다.

우리는 고린도후서의 신학적 주제를 살펴볼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기 전에, 바울이 이 서신을 썼다는 것을 기억합시다. 그리고 이것이 바울의 서신 중 가장 가끔씩 쓰인 서신이라는 데에는 항상 동의해 왔습니다. 바울이 누구인지 알고 싶다면 말입니다. 알다시피, 보통 바울에 대해 이야기할 때, 우리는 이 사람, 영웅을 봅니다.

그는 감정이 없는 듯, 감정이 없는 듯합니다. 그는 슈퍼맨입니다. 하지만 바울이 누구인지 알고 싶다면 고린도후서를 보세요.

고린도후서는 바울의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는 창문을 제공합니다. 바울과 그가 그리스도께 인도한 사람들 사이에 긴장된 관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롤러코스터와 같습니다. 그들은 그를 사랑합니다.

그들은 그를 싫어합니다. 그들 중 일부는, 글썄요, 그의 존재는 싫지만 그의 편지는 매우 강력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풀은 자신을 변호해야 했습니다.

침입자였던 사람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바울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을 바꾸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진정한 의미에서 목사로 봅니다.

목사로서 바울은 마음에서 우러나와 말합니다. 즉, 고린도인들이 그를 오해했기 때문에 그는 마음의 짐을 내려놓았습니다. 그것은 닳아빠진 관계였습니다.

당신은 목사가 되어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를 이끌고, 그 교회에서 목회한다고 상상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당신이 많은 시간과 삶을 바친 사람들이 갑자기 당신을 반대하게 되었는데, 어떤 사람들이 들어와서 스스로를 사도라고 불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보시다시피, 그는 바로 거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바울은 그들을 방문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나중에 고린도후서 1장을 볼 때 그것을 살펴볼 것입니다. 바울은 그들을 방문할 것이라고 말했지만, 그는 그들을 방문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말합니다. 글썄요, 이 사람을 보세요.

그는 온다고 했지만 오지 않아요. 그는 나타나지 않았어요. 당신은 그의 말을 믿을 수 없어요.

그냥 그의 말을 믿을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변덕스럽습니다. 우리는 고린도후서 1장에 도달했을 때 그것을 살펴볼 것이고, 우리는 그 구절들을 설명할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들은 그에게 돈도 주고 싶어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말했습니다, 아니, 나는 당신의 돈을 원하지 않습니다. 나는 당신의 돈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는 예루살렘을 위해 돈을 모으고 싶어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우리가 당신이 원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돈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당신은 기금을 모으고 있습니다.

정확히 무슨 일인가요? 그래서 그들은 바울이 그들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왜냐하면 만약 당신이 우리를 사랑한다면, 왜 우리가 주는 돈을 거부하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우리는 여기 있고, 당신은 다른 사람들을 위해 돈을 모으고 있습니다. 당신은 분명 우리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들에게 말해야 했습니다. 보세요, 선생님이 천명이라도 아버지는 한 분뿐입니다.

내 속박으로,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노라. 그러니 이런 긴장과 일어나는 모든 일을 보시죠. 그리고 바울은 자신의 고난과 고통과 그 모든 것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는 바울에 대해, 그가 겪었던 일, 그가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그가 고린도 사람들을 얼마나 사랑했는지에 대해 많은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책을 살펴보면 배울 것이 많습니다. 학자들이 고린도후서에 대해 강조한 또 다른 문제는 우리가 그 책의 구성적 무결성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고린도후서가 너무나 많은 책의 패치워크라고 말했고, 아마 5~6권 정도를 찾을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본 중에 고린도후서 전체를 담고 있지 않은 사본은 없습니다. 따라서 제 의견으로는, 그리고 물론 다른 사람들의 의견으로는, 고린도후서는 분명히 한 글자일 뿐입니다.

수사학을 공부해야 합니다. 글썄요, 때때로 논쟁이 있습니다. 왜 고린도후서 10장 10절에서 13절까지 그의 태도를 바꾸 었을까요 ? 물론 편지에서 태도를 바꿀 수는 있습니다. 무엇을 쓰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리고 우리는 바울이 밤새 앉아서, 좋아, 지금 고린도인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다고 말했고, 그가 모든 것을 썼다고 가정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는 저녁에 시작해서 아침에 끝내서 우편으로 보냈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이 글을 쓰는 데 시간이 걸렸습니다. 누군가가 어조를 바꾸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 외에 수사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아시다시피, 당신의 어조는 당신이 무엇을 다루고 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것은 당신이 이야기하고 싶은 이슈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린도후서를 정경에 있는 그대로의 한 글자라고 말합니다.

물론, 다른 사람들은 8장과 9장이 한 글자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8장이 한 글자이고, 9장이 한 글자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저는 어떤 학자가 회의에서 고린도후서 9장이 8장보다 앞선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궁금해할 것입니다. 글썄요,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그리고 우리는 말했습니다. 글썄요, 고린도후서 1장부터 13장까지 있습니다.

그것을 처리합시다. 그리고 메시지만 살펴보죠. 그것은 정경에 있습니다.

그럼, 정경에 있는 고린도후서의 메시지를 살펴보죠. 정경에 있는 것은 다섯 글자가 아니라 한 글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식으로 다루고 싶습니다.

다시 말해서, 보간 이론이라고 부르는 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증명의 책임은, 글썄요, 그것은 한 글자가 아니라 여러 글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물론 고린도인들에게 쓴 편지를 볼 때, 보통 고린도인들에 대해 말할 때, 당신은 악으로 가득 찬 도시였던 고린도라는 도시를 기억한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제 말은, 그곳은 교회 개척에 가장 가능성이 낮은 곳이었습니다. 교회 개척에 대해 이야기할 때, 코린트에 가고 싶지 않을 겁니다. 그곳의 종교는 코린트 인구만큼이나 다양했거든요. 제 말은, 무려 26개의 성지가 여러 신에게 바쳐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곳에 교회를 세우실 수 있다는 것은 매우 위대한 일입니다. 그리고 오늘날처럼, 고린도 기독교 공동체는 다양했습니다. 민족적, 사회적 다양성이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이 있고, 부유한 사람이 있고, 다양한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제, 바울이 고린도서를 쓴 이유가 무엇인지 묻고 싶을 것입니다. 항상 질문이 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서를 쓴 이유는 무엇일까요? 일반적으로 동의하듯이, 고린도후서는 바울이 도시를 떠난 후부터 18개월이 끝날 때까지 발생한 실제 문제에 직면한 실제 사람들에게 쓴 실제 편지인 가끔씩 쓰는 편지입니다.

이건 진짜 편지입니다. 저는 때때로 사람들에게 목회서신이라고 부르는 편지를 알고 싶다면, 목회적이라는 의미에서 고린도후서가 그 편지라고 말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경에는 디모데전서, 디도서, 디모데후서가 있고, 우리는 그것을 목회서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오늘날 목사와 사역자들이 직면한 문제를 다루는 신약성서의 책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을 때, 그것은 고린도후서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정직성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바울의 정직성 말입니다. 바울은 한 가지를 말하고 다른 것을 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정직성을 변호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물론 오늘날 사역에서 정직성 문제에는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그들은 그의 메시지에 의문을 제기합니다. 그들은, 글썄요, 그의 메시지는 매우 어렵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사람을 의심하고, 그의 메시지를 의심합니다. 돈에 문제가 있었고, 그들 사이의 관계에 문제가 있었고, 고통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역에서 가진 모든 것, 고린도후서를 보면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책을 제 의견으로는 목회서신이나 목회서간이라고 불러야 한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부르든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이 책은 현실 세계에서 실제 사람들이 직면한 실제 문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책을 살펴보고 싶습니다. 하지만 제가 얼마 전에 말했듯이, 고린도후서의 주요 주제를 살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를 읽을 때, 무엇을 발견할 것으로 기대하십니까? 바울이 다루고자 하는 문제는 무엇입니까? 아시다시피, 특정 서신에서 바울의 신학에 대해 말할 때, 바울이 무엇보다도 목회자 선교사였다는 것을 명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사람들이 “나는 신학자가 아니야, 나는 신학자가 아니야”라고 말하는 것을 이해합니다. 글썄요, 그것은 부분적으로 옳고 그름입니다. 당신이 신학자가 아니라고 말할 때, 당신이 훈련된 독단주의자가 아니라고 말한다면, 당신은 학교에 가서 신학을 배우는 의미에서 훈련된 신학자가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목사이고 목사라면, 당신은 항상 신학을 합니다. 당신이 교회 회원에게 상담을 하고, 그가 당신은 목사이고, 저는 고통받고 있다고 말할 때, 저는 무엇을 합니까? 그리고 당신은 성경을 펴서 고통에 대해 설명합니다. 당신은 신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의 교회 회원이 친척을 잃었을 때, 저는, 글썄요, 상관없어요, 그녀는 천국에 갔고, 우리는 마지막 날에 다시 만날 거예요. 당신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당신은 신학을 하고 있습니다. 비록 당신이 신학자라는 기술적 의미에서 신학자가 아니더라도요.

그래서 우리는 바울을 기술적인 신학자가 아니라 그가 한 모든 일을 그의 신학의 일부로 보기를 원합니다. 그는 목사 선교사였습니다. 따라서 바울의 신학은 목사와 선교사로서의 그의 경험에서 비롯됩니다.

다시 말해, 바울은 제가 시장 신학자라고 부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시장에서 신학을 행한 시장 신학자였습니다. 게다가 이 편지는 다른 편지들과 마찬가지로 가끔씩 쓰이기 때문에, 편지들은 교회들이 직면한 특정 상황을 다루기 위해 쓰여졌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고린도후서에도 해당됩니다. 하지만 이 서신을 읽으면 책에 있는 신학적 주제가 분명해집니다. 그러니 그 중 일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바울의 하나님에 대한 견해는 고린도후서에서 매우 매우 분명합니다. . 알다시피, 바울은 1장 13장 14절에서 작별 축복을 한 것을 제외하고는 알려진 대로 삼위일체 교리를 명확하게 공식화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신성과의 개인적인 만남에서 비롯된 하나님의 삼위일체적 본질에 대해 매우 명확한 진술을 합니다.

아시다시피, 그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에 대한 여러 가지 중요하고 시대를 초월하는 확언을 합니다. 예를 들어, 그는 하나님 아버지를 은혜의 근원이라고 언급합니다.

그는 하나님 아버지를 은혜의 근원이라고 부릅니다. 1장 2절, 8장 1절, 9장 14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그는 순수함과 성실함의 근원입니다.

그리고 1장 12절에서 그가 자비를 베풀고 위로를 베푸는 것을 보셨죠. 바울이 무슨 말을 하는지 알고 싶으시겠죠. 그는 죽은 자를 살리는 자이고 흠잡을 데 없는 증인으로 행동하는 자입니다.

그는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그리스도에 대한 신실함에서 믿는 자들을 강화하는 사람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에 대해 많은 것을 말합니다. 3장 3절에서 그는 하나님은 영원히 살아 계신 분이라고 말합니다.

아시다시피, 오늘날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항상 살아 계신 분이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는 주무시지 않습니다. 그는 졸지 않습니다.

그는 영원히 살아 있는 사람입니다. 그에 대한 이야기를 아주 빨리 들려드리겠습니다. 누군가 배에 타고 있었는데 폭풍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폭풍이 계속되면서, 그것은 격노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말했습니다. 글쎄요, 들어보세요, 성경은 이스라엘을 지키는 자가 잠들지 않고, 졸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글쎄요, 그것은 우리가 이 폭풍 속에서 잠들지 않고, 신도 잠들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 중 한 명이 잠자리에 드는 게 낫습니다. 신이 잠자리에 들거나 내가 잠자리에 드는 거죠. 그래서 그는 결정했습니다. 좋아, 신이 깨어 있게 두고, 나는 잠자리에 들겠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폭풍은 멈췄습니다. 신은 영원히 살아 계시고, 항상 현존하십니다. 그는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는 더 이상 사람들의 범죄를 그들의 계좌에 기입하지 않습니다. 그는 모든 은혜의 신입니다. 그는 관대하게 베푸는 사람을 사랑합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온갖 축복을 쏟아 부을 수 있습니다. 9장 8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뿌릴 씨앗과 먹을 빵을 생산합니다. 그는 하나님이시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시며, 영원한 찬양을 받으실 자격이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찬양받아야 합니다. 그는 인간 경험의 세부 사항을 알고 있습니다. 12장 2절과 3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의 은사와 속성으로 사랑과 평화로 표시됩니다.

그리고 바울은 특정한 행위에 대해 신에게 공을 돌립니다. 이제, 이 책을 공부할 때, 당신은 바울이 신에 대해 말하는 것을 살펴봐야 합니다. 이것은 당신이 읽고 버리는 편지가 아닙니다.

읽고, 소화하고, 생각해 볼 편지입니다. 고린도후서를 읽으면 하나님에 대해 무엇을 배울까요? 물론, 아버지와 함께 바울은 예수를 은혜의 근원으로 묘사합니다. 바울은 주저 없이 그리스도의 신성을 확인합니다.

주저함 없이, 성육신 이전의 선택을 통해, 그리스도는 하늘의 존재의 풍요로움을 지상의 삶의 상대적 빈곤으로 바꾸었습니다. 8장 9절에서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상에서 사는 동안, 그는 10장 1절에서 온유함과 관용을 보였습니다. 구원의 날인 새로운 시대를 연 그의 죽음은 어떠한 구별 없이 모든 사람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그는 모든 사람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이제 그의 죽음의 혜택을 누리는 것은 개인에게 달려 있지만, 그 혜택은 모든 사람에게 주어집니다. 그는 그리스도 안에 현존하고 활동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것이 그리스도를 통해 행한 화해의 행보에서 두드러지게 드러난 것을 봅니다. 그리고 그는 그리스도를 인간을 대신하여, 우리를 대신하여 같은 제물을 바친 분으로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었고, 그에게서 힘도 받았으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자들은 이제 하나님의 의가 되거나 하나님의 눈에 의롭게 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는 성령에 대해 말할 것이 있습니다. 바울은 성령에 대해 많은 것을 말합니다. 흥미로운 점은 바울이 고린도후서에서 성령에 대해 17번이나 언급한다는 것입니다.

17번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그는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성령의 역할에 대해 말합니다.

성령은 형성을 담당하고, 장비하고, 우리의 그리스도인 생활을 보존하는데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긍정적인 행보를 의미하는 성령의 행보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자격을 부여하는 것은 성령입니다.

아시죠, 제가 어린 개종자였을 때, 그들은 말하곤 했습니다. 하느님이 부르지 않으시면 스스로 부르세요. 스스로 부르면 문제가 생깁니다. 문제가 생기면 아무도 도와주지 않습니다.

자신을 부르지 않는 게 낫습니다. 당신은 영의 자격 증명 행보를 봅니다. 당신은 영에 의해 자격 증명을 받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저는 우리가 교파와 단체로부터 자격증을 받는다는 것을 이해하지만, 성령의 자격증은 우리에게 필요한 가장 중요한 자격증입니다. 성령께서 그것을 담당하십니다. 그는 또한 회중이 성령에 의해 형성된다고 말씀하십니다.

회중은 고린도후서 3장 1절에서 3절까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회중을 형성하셨습니다. 선교사라는 직함도 성령께서 인증하십니다. 고린도후서 6장 6절에서 바울은 구원 역사에서 성령의 기능을 탐구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있습니다. 워프 프뉴마는 13절 안에 6번 나타납니다. 고린도후서 3장에서 바울은 성령의 행함을 고린도후서의 구원 역사의 중심에 놓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구원의 행보에 접선적이지 않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아시다시피, 사람들이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 신격 의 세 번째 인격에 대해 말하는 방식에 대해, 저는 때때로 그것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는 방식이 약간 계층적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올림픽에 가는 것과 같습니다. 누군가는 금메달을 따고, 누군가는 동메달을 따고, 누군가는 은메달을 따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는 금메달을 따고, 예수는 은메달을 따고, 성령은 동메달을 딴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그들은 모두 메달을 따지만, 한 메달은 다른 메달보다 못하다는 것입니다.

아니요, 그것은 신격에서 작동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성부, 성자, 성령은 함께 걸으십니다. 서로 다른 인격이지만 본질은 하나입니다.

그리고 성령은 친밀하게 관여합니다. 이제 제 말을 들어보세요. 당신은 오순절교도가 아니어도 그것을 믿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우리에게 성령이 관여하고 새 언약의 대리인이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성령은 우리의 유산에 대한 하나님의 증여금과 부활의 보증으로 믿는 자들에게 주어졌습니다. 당신은 그것을 보고 살아 계신 하나님의 영이라고 불립니다.

그리스도께서 칭찬의 편지를 쓰신 수단이 고린도인들입니다. 잉크는 지워질 수 있지만, 성령의 인격과 행보는 켜지지 않습니다. 잉크는 지워질 수 있고, 그것이 바울이 그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외적인 계명으로 여겨지는 기록된 율법은 생명이 없지만, 성령은 생명을 주는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믿는 자들 안에 거하시고 우리를 소생시키시기 때문입니다. 새 언약 시대는 특별한 신적 영광으로 특징지어질 뿐만 아니라 특히 성령이 하나님의 백성 안에서 그리고 그들 사이에서 임재하고 활동하는 시대입니다. 바울은 성령으로 돌이키고 성령으로 변화되어 성령을 통해 자유를 얻는 것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주님의 영이 있는 곳에는 자유가 있습니다. 부정적으로는 그리스도에 대한 반쪽 마음과 무지함으로부터의 자유, 그리고 긍정적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방해받지 않고 볼 수 있는 자유,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에 접근할 수 있는 자유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영이 있는 곳에 대해 이야기할 때, 자유가 있습니다.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부정적으로는 완고함과 그리스도에 대한 무지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이고, 물론 긍정적으로는 야훼의 하나님의 영광을 방해받지 않고 볼 수 있는 자유와 하나님의 임재에 접근할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다가가서 그분의 임재에 접근할 수 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이 책을 볼 때 보고 싶은 다음 사항은 화해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가 책을 자세히 보기 시작할 때 이 책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화해는 바울의 생각에 우연한 것이 아니며, 특히 고린도후서에서 그렇다. 2장 5절에서 11절까지, 바울은 이미 가해자의 문제를 다루면서 화해와

회복이 일어나기를 촉구했다. 오늘날 우리가 화해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은가? 하지만 진실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경험하지 않는 한 진정한 화해는 있을 수 없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것만이 증오를 없앨 수 있기 때문이다.

지역 교회의 규율은 반드시 구속적이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화해는 하나님과 인류 사이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동료 남성과 여성 사이에서도 일어납니다. 화해는 개인적인 경험 이상입니다.

그 이상입니다. 그것은 종종 용서하려는 의지에 의해 형성되지만, 또한 국가적이고 공동체적인 경험에서 치유와 개인적 관계 없이, 그리고 과거에서 미래로의 전환 없이, 화해에 대한 어떤 이야기도 그저 이야기로 남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고린도후서에서 화해의 창시자이자 목표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대리인이었습니다. 수혜자는 주로 인간입니다. 화해는 이미 이루어진 사실이지만, 또한 지속적인 과정이며, 인간은 화해의 메시지에 응답하고 그 결과 하나님과 화해함으로써 화해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알다시피, 화해는 바울이 진정한 사역에 대한 논의를 위한 동기이자 발판입니다. 고린도후서가 다루는 질문 중 하나는 진정한 사역이란 무엇인가입니다. 그것은 오늘날 2020년이나 이 세대에 우리에게 매우 타당한 질문입니다. 우리는 모든 곳에서 급증하는 다양한 종류의 사역을 살펴볼 때 말입니다. 진정한 사역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고린도후서 3장을 논의할 때, 우리는 그것에 대해 좀 더 자세히 다룰 것입니다.

이제 그는 그리스도의 사랑에 의해 동기를 부여받았는데, 그는 우리를 위해 죽으실 때 그 사랑을 정의합니다. 이 책에서 살펴보는 또 다른 주제는 우리 대부분이 듣고 싶어하지 않는 고통입니다. 고통은 고린도후서에서도 중요한 주제입니다.

알다시피, 이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오순절교도이고,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오순절교도들은 고통에 대한 나쁜 신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매우 승리주의적 입니다 . 제 말은, 신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고통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아니요. 당신은 말합니다, 글썄요, 두야 교수님 , 당신은 고통을 좋아하세요? 저는 좋아하지 않아요.

나는 그것을 원하지 않는다. 나는 고통받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하지만 진실은 그것이 성경의 일부이며, 고린도후서에 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이고, 보세요, 이것은 성경의 일부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에 허락하신다면, 그분은 그것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바울에게 있어서 고난은 단순한 학문적 주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가 맛본 경험이었고 그의 죽음으로 끝났습니다. 이 편지에는 바울의 사도적 고난에 대한 두 개의 긴 목록이 들어 있지만, 그의 그리스도인 고난에 대한 신학은 1장 3절에서 11절에서 가장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우리는 그것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바울은 고난을 선교사적 소명과 실천의 필수적인 부분으로 이해했습니다. 그것은 그의 선교사적 소명과 실천의 필수적인 부분이었습니다. 그것은 추가된 것이 아닙니다.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는 그것을 알고 있었어요. 사실, 당신도 그것을 알고 있어요.

고린도후서가 아닙니다. 빌립보서 1장에서는 그가 은혜롭게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말합니다. 그 단어는 성찬례입니다.

그는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은혜롭게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그의 이름을 위해 고난을 겪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의미에서 고난은 은혜의 선물입니다. 당신은 말합니다. 글썄요, 저는 그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원하지 않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몇 년 전, 저는 고린도전서 1장을 가르쳤는데, 학생 중 한 명이 "듀이 박사님, 고난은 성령의 은사 중 하나가 아닌가요?"라고 물었습니다. 저는 "죄송하지만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렇다면 기도하지 않겠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저는 평생 고난을 겪으며 살았기 때문에 지금은 고난의 은사를 원하지 않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고난이 우리의 소명에 필수적인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고린도후서에서 사도적 고난을 자주 언급하는 것은 이러한 경험이 사도로서의 자신의 정체성과 사명에 대한 대부분의 신학적 성찰의 주제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개종자들을 격려하고 격려하는 수사적 도구가 되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바울의 서신에서 고난의 희생적 선교적 기능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희생적이었습니다. 그것은 선교적이었습니다. 그것은 고통을 위한 고통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알아? 그래서 풀이 노래하지 않은 거야: 아무도 내가 보는 괴로움을 모르고, 아무도 내 슬픔을 모르고, 때로는 계곡에 있고, 때로는 산에 있어. 아니, 아니, 아니, 아니. 풀은 이것이 자신의 부름의 필수적인 부분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결코 동정 파티를 열지 않았어.

오히려 바울은 그 자체로 목적으로 고통을 겪지 않았습니다. 그의 고통은 다른 사람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아시나요? 바울은 피해자적 사고방식을 피했습니다.

그는 피해자 의식이 없었습니다. 불쌍히 여기지 마세요, 그건 바울의 언어에 전혀 들어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는 고통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살펴볼 것입니다. 제 말은, 당신은 우리가 그것을 살펴볼 것이라고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는 모든 것을 살펴볼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소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마 다시 듣고, 알겠어요, 그는 나중에 살펴보자고 말할 거예요. 네, 살펴보겠습니다. 하지만 그냥 참아주세요.

그러면 교회 교리, 에클레시아는 어떨까요? 바울에게 지역 회중은 실제적이고 야생 세계 공동체를 대표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바울은 교회 구성원이 영에 의해 쓰여진 편지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교회를 하나님의 종말론적 활동의 지역 주민으로 이해한다고 말씀드려도 될까요? 바울은 교회를 이해합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는 제가 그냥, 저는 교회에 속하지 않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나는 내 집에서 교회를 할 수 있어. 나는 내 집에 머물 수 있어. 아니, 그건 풀을 위한 게 아니야.

그는 교회, 신자들의 몸을 봅니다. 이것은 우리가 바울을 제대로 읽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의 신학은 공동체적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함께합니다.

그것은 사람들에 대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개인을 구원하고 이 개인들을 천국으로 데려오는 것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가 국가를 부르신 것과 같은 사람들을 구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사람들을 구원하고 천국으로 데려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속해 있습니다. 성령은 개인에게 스스로 행동할 자격을 줍니다. 그리고 바울은 교회를 하나님께 속한 것으로 지정합니다.

사실, 11장 2~3절에서 바울은 교회가 그리스도와 약혼한 것으로 묘사하고, 따라서 그가 돌아올 때까지 순수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묘사 외에도 세 가지 기본적인 은유를 사용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 하나님의 사람들.

따라서 그리스도교적 경험에 대한 특별한 설명으로서, 그리스도는 모든 신자와 교회 전체가 그리스도와 친밀하고 구체적으로 교제하는 것을

지칭합니다. 세례를 통해 우리는 영적인 그리스도의 영역에 통합되고 새로운 창조물로서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창조물이 됩니다.

교회는 중요합니다. 이제 거룩함에 대해 조금 이야기해 봅시다. 고린도후서의 핵심 문제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회원들을 하나님의 성도라고 부릅니다. 그는 그들을 하나님의 성도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 거룩하게 부름을 받습니다.

반면에 교회는 존재의 모든 영역에서 윤리적 거룩함을 보여야 합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삶의 어느 한 측면도 그리스도의 사역에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이 없어야 합니다.

그의 거룩함에 대한 개념은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과의 개인적 관계에 의해서만 제한되거나 한정되거나 정의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시다시피, 오늘날 세상에서는 모든 것이 나, 나 자신, 그리고 나 자신에 관한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밖에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 말씀드릴까요? 바로 그게 우리가 가진 문제입니다. 알다시피, 저는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죄의 문제를 아십니까? 가운데에 있는 글자가 있나요? 저는 그것이 죄의 문제라고 말합니다.

이 편지가 중간에 있는 건 모든 게 나를 중심으로 돌기 때문인가요? 그리고 안타깝게도, 그것이 오늘날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종말론은 어떨까요? 종말론은 바울의 신학적 논의에서 벗어납니다.

고린도후서에서 우리는 이미와 아직의 긴장감을 1장 8절에서 11절까지 11장에서 봅니다. 그리고 물론, 5장에서 그는 이 장막이 해체되는 지상의 시간에 대해 말하고, 우리는 하늘에 집을 가지고 있으며, 그는 하나님을 비교합니다. 하나는 일시적이고, 하나는 영원하며, 하나는 건물이고, 하나는 천막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는 종말론이 개입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바울은 바울에게 재정 청지기에 대한 이해를 주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는데, 이는 그리스도인의 삶과 사역에 필수적인 부분입니다. 그것은 고린도후서 8장과 9장인데, 바울의 재정 청지기에 대한 관심과 헌신을 자세히 설명합니다. 바울은 베푸는 것이 긴급한 필요에 대한 단순한 대응이나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들에게 주는 일부 지원 이상의 것이라는 것을 이해합니다.

그것은 재정 이상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화해 사역에 개인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대체할 수는 없지만 희생적으로 자신을 바치신 그리스도의 삶에서 예시된 바와 같습니다. 예루살렘 신자들의 고통을 덜어주도록 온유한 신자들에게 바울이 격려한 것은 형제적 사랑의 행위로, 모든 국가적, 지리적 경계를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교회의 본질을 보여주려는 것입니다. 바울에 따르면, 베푸는 것은 관대하고 자발적이며 끈기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제가 언급하고 싶은 마지막 것은 영적 전쟁입니다. 고린도후서를 보면, 기독교 사역은 전쟁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그것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깜짝 놀라게 됩니다. 하지만 그것이 싸움이라는 것을 알 때, 기독교 사역은 전쟁입니다. 이제, 우리는 오, 싸움은 계속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계속되는 투쟁이 아니라, 싸움입니다. 고린도후서의 여러 곳에서 바울은 마귀의 행보를 언급합니다.

그는 믿는 자들의 잘못을 저지른 후 과도한 슬픔으로 그들을 압도하거나 용서하지 않는 정신을 부추겨서 그들을 속이고 사기치려고 합니다. 보다시피, 우리는 용서하지 않는 정신을 가지고 있거나 우리를 속이거나 사기치려고 합니다. 그는 현 시대의 통치자로서 믿지 않는 자들의 이해력을 눈멀게 하여 그들이 복음을 믿지 못하게 합니다.

누군가에게 증거한 적이 있고, 그 사람에게 그리스도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이해가 안 가요. 이해할 수 없어요.”라고 말한 적이 있나요? 그리고 나서 스스로에게 “이게 가능한 한 가장 분명한 거야.”라고 물어본 적이 있나요?

아시죠, 당신이 신의 자녀이고, 신자일 때, 당신은 성경을 보고, 이것은 가능한 한 분명합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것을 철학 교수, 공학 교수에게 주고, 저는 이것을 볼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신의 힘이 필요합니다.

이 세상의 신인 권세가 그들의 눈을 멀게 했고, 그들의 이해력을 멀게 하여 복음을 믿지 못하게 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글썄요, 신은 기도에 응답하신다고 말합니다. 저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글썄, 나도 이해할 수 없지만, 그는 이해한다는 걸 알아. 그리고 죄인은, 아니, 넌 증명할 수 없어. 내가 증명할 수 있어.

기도에 대한 응답을 보았기 때문에, 당신은 신자로서, 마귀가 이 현 시대의 통치자이며, 신자들의 이해력을 눈멀게 하여 복음을 믿지 못하게 하고, 복음을 믿지 못하게 한다고 말합니다. 그의 목적은 그리스도의 목적과 정반대입니다.

하와의 이 교활한 속임수에 따라, 그것은 믿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에 대한 온전한 헌신에서 빗나가게 하려고 시도합니다. 그는 빛의 천사로 가장하고, 그에 따라 그의 하수인들은 의의 대리인으로 가장합니다. 바울은 믿는 사람들에게 영적 전쟁에 들어가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바울은 전쟁에 나가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아니요, 바울이 말하는 것은 그게 아닙니다. 그는 단지 사실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는 이것이 전부라고 말했습니다. 영적 전쟁이 전쟁에 나가면 싸우자. 아니, 아니, 아니.

그는 당신이 전쟁 중이라고 말했어요. 그는 우리에게 전쟁에 나가라고 말하지 않아요. 우리는 전쟁 중이에요.

하지만 보시다시피, 아름다운 것은 이겁니다. 신은 우리에게 그 너머에 충분한 무기를 제공하셨고, 이 무기들은 투쟁의 본질을 암시합니다. 그는 우리에게 극복할 무기를 주셨고, 이 무기들은 우리가 겪고 있는 투쟁의 본질을 암시합니다.

우리가 기독교 사역을 위해 가진 복음과 다른 무기들은 모두 신성합니다. 그것들은 다양한 거짓 교사들과 거짓 가르침에 의해 세워진 요새를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를 거두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고린도후서에 대한 그의 가르침에서 아요 아데 우야 박사 입니다 . 이것은 세션 번호 1, 서론입니다.